

남구 ↔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전대

재난관리협력체계 구축 협약 체결

남구는 지난 19일 오전 구청 대회의실에서 이종철 구청장과 김승우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전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전대와 재난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로써 대규모 또는 국지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구청과 군부대간 정보교류와 응급복구 장비, 물자, 인력 등을 상호 지원함으로써 신속한 재난대처와 유관기관 간 친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이날 이종철 구청장은 “재난업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재난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게 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며 “협약을 통해 지역의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에 협력하는 분위기를 이어나가자”고 밝혔다.

한편 남구와 해군작전사령부는 지난해 7월27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응호동 지역이 큰피해를 입자 서로 긴



남구는 지난 19일 오전 구청 대회의실에서 해군작전 사령부 부산기지전대와 재난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밀한 협조체계를 갖추고 피해 복구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였다.

해작사에서는 대형트럭과 펌프차 등의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사태를 수습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었다. 남구에서도

재난 관련부서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해 재난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했으며 재난 피해지 57개소에 155억9,1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신속한 복구에 협쳤다.

남구는 토요학교 지원 도시

교과부 선정, 주5일수업제 정착 기대



남구가 교과부 주관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로 선정됐다. 사진은 남구가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7일 남구가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지원도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이하 가사토)는 2012년부터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에 따라 기초차치단체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 건

전한 학교 밖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는 토요일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

남구는 그동안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의 노하우를 가지고 지속적인 교육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대학

교와 박물관, 대연수목전시원 등을 활용한 학생 대상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매우 활발한 역할을 해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에 지원도시로 선정됐다.

남구는 앞으로 토요학교 운영협의회를 구성, 이기대, 오륙도를 활용한 토요 체험학교를 개설하고 서울의 우수 대학교와 관내 대학교를 연결하는 캠퍼스 투어를 실시하는 한편, 토요 남구청 투어 프로그램을 실시해 직업 진로교육에도 힘을 예정이다. 또한 수산과학관, 바다학교 이기대, 남구도서관과 학교 도서관을 연계하는 토요 독서활동을 지원하고 돌봄보실 및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국비 최대 5천 만원을 지원받고 구비 및 민간대응 투자비 등 모두 2억6,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올 한해 주5일수업제 정착과 학교 밖 학습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강사 및 코디네이터, 강사 연수를 통해 프로그램 질 제고에도 힘 써 명실공이 남구를 전국적인 토요학교 운영 모델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607-4512

남구, 대학과 평생학습 협력사업

8개 프로그램 개설… 수강생 180명 모집

남구는 부산광역시 지원사업으로 2012년도 대학·지역간 평생학습 협력사업을 시행한다.

3,7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부경대와 동명대가 참여

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안전을 제공한다.

부경대학교는 웰빙 원예사, 청소년 비전형성지도사, 영유아놀이전문 심리상담사 등 4개 프로그램을 마련

하고 수강생 120명을 모집한다.

동명대학교는 실버디지털영상편집, 동화구연 지도사반, 실버 매직, POP디자인 자격증반 등 4개 프로그램을 개설, 60명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일반인은 소정의 수강료를 내야하며 기초생활수급자, 65세이상 노인 등은 수강료가 무료다. ☎629-6794(부경대), 629-3512(동명대)

남구 국민체육센터, 체력인증사업 거점센터로 선정

영남에서 유일, 사업비 2억원 받아 주민대상 무료 맞춤형 운동처방

남구 국민체육센터가 영남권에서는 유일하게 체력인증사업 거점센터로 선정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17일 전국을 4개 권역(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으로 나눠 설치되는 거점센터로 영남권 후보지로 남구 국민체육센터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거점센터로 선정 공모에는 남구 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한 부산지역 4개 국민체육센터와 대구, 경북, 울산, 경남 등 영남지역 다수의 체육센터가 참여해 열띤 경쟁을 벌였으나 우수한 시설과 지역여건을 두루 갖춘 남구 국민체육센터가 최적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남구 국민체육센터는 국비 2억원의 운영비용을 지원받아 국민 개인의 체력과 체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체력상태에 적합한 맞춤형 운동처방을 지원하는 국민체력인증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만19세~만64세 성인 남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센터에서 무료로 체력수준 측정과 평가를 받아 국가공인 체력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인에 맞는 운동처방과 체력향상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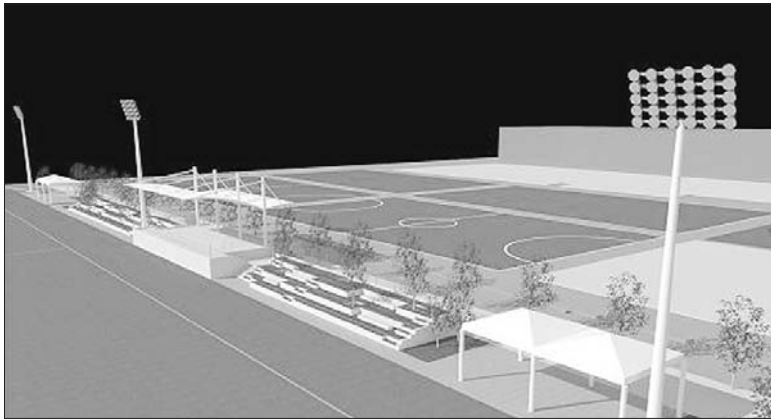
한편 남구 국민체육센터는 알차고 유익한 프로그램 운영과 쾌적한 환경 유지를 통해 부산의 대표적인 스포츠 시설로 명성이 높다.

현재 아쿠아로빅 등 19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폴크로실과 주말스포츠 교실을 개설해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회원수가 4천명에 육박하면서 명실상부한 스포츠 메카로 거듭나고 있다.

백운포체육공원

인조잔디축구장 친환경 스텐드 설치



백운포체육공원 인조잔디 구장에 200석 규모의 스텐드(조감도)가 설치된다.

지난해 6월 야간조명시설을 갖춘 백운포체육공원이 이번에는 인조잔디구장에 200석 규모의 친환경 스텐드가 설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남구는 지난달 말 부산시로부터 6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가족이 함께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친환경 스텐드 설치 공사에 들어갔다.

공사는 200석 규모의 관람석과 관리사무실, 그리고 생활체육회·동호

회 사무실이 들어설 관리동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며 6월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텐드가 들어서게 되면 백운포체육공원은 인조·천연잔디 축구장, 야구장, 풋살장, 농구장,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인프라 구축으로 부산 최고의 스포츠단지로 각광 받을 전망이다.

오륙도선착장에 안전난간 설치

승용차 추락 등 사고 방지 대책 마련

오륙도 선착장에 승용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남구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이 대책 수립에 나서 안전 난간을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된 난간은 승용차 추락 지점인 선착장 끝부분에서 1m 떨어진 곳에 ㄷ자 모양의 스테인리스 파이프 안전관을 고정시키고 여기에 펜스를 박아 완성시켰다. 또 차량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한 안전 일간판 3개도 설치했다.

남구는 지난달 18일 저녁 오륙도 선착장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즉시 유관기관에 연락해 차량을 통제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이어 지난달 22일 현장에서 안전시설을 설치 관련 현장회의를 열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용호농장, 해양경찰서 등 4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안전사고와 관련한 시설물 설치 대책을 논의하고 토지소유자인 자산관리공사와 사용자인 용호농장의 안전 이행 의무를 촉구했다.

회의 결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주관으로 오륙도 선착장 주변에 안전난간을 설치키로 하고 26일부터 오륙도 선착장 안전시설 설치 공사에 들어갔다. 공사 예산은 선착장 부지 소유주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치했다.

지진해일 발생시 이렇게 행동하세요!

- 일반적으로 일본 서해안의 지진대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보고되면 약 1~2시간 후 한국의 동해안에 지진해일이 도달하게 된다.



- 지진해일 도달 가능 영역은 한국의 동해안 전역이고, 파고 3~4m 정도의 지진해일이 발생한다.

- 심한 지면의 진동을 느꼈다면 가까운 곳에서 큰 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해안지역에서는 수 분 이내 지진해일이 해안으로 밀려올 수 있다.



- 해안에서 지진을 감지하거나 지진해일 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높은 곳으로 대피한다. 저지대 도로에서 운전 중이라면 즉시 높은 지대로 도로로 대피한다.

- 지진해일이 발생하였을 때 '더 멀리'가 아니라 '더 높은' 지대로 대피한다. 지정된 대피소로 피할 시간이 없다면 건물의 3층 이상으로 대피하면 된다.



- 지진해일 특보가 해제되기 전까지 해안의 낮은 지역으로 가지 않는다.

캐나다판 ‘태극기 휘날리며’ 주인공

조지프.아치볼드 허시 형제 합동 안장식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형을 평생 그리워하다 숨을 거둔 후 형의 묘소 옆에 누운 동생. 이 두 형제의 이야기가 전란한 감동을 던져주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25일 유엔기념공원에서 6·25전쟁에 캐나다군으로 참전한 조지프 허시·아치볼드 허시 형제의 합동안장식을 열었다.

캐나다판 ‘태극기 휘날리며’로 알려진 형제의 눈물겨운 사연은 195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22세였던 형 조지프 씨는 다니던 철도회사를 그만두고 군에 입대해 6·25전쟁에 참전했다. 도로관리자로 근무하다 전쟁에 먼저 참전한 동생 아치볼드 씨(당시 21세)가 격정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오직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형은 동생에게도 알려지 않은 채 같은 부대인 캐나다 제2보병대대에 지원해 한국 땅을 밟았다.

안타깝게도 형제는 전쟁기간에 서로 만나지 못했다. 연일 격전을 벌이면서 동생의 안부를 수소문 하던 형은 1951년 10월13일 적탄에 어깨를 맞고 쓰러졌다. 출혈이 심해 생명이 위태로웠다. 그제야 동

생 아치볼드 씨는 형의 참전과 부상 소식을 전해 듣고 달려왔다. 형제는 생의 마지막 수난에 빠졌지만 감격이런 재회를 했다. 이때 동생은 형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참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지만 형은 동생의 손을 꼭 잡은 채 숨을 거뒀다.

형은 그해 10월17일 유엔공원에 안장됐고 동생은 형의 유일한 유품인 잠옷을 어머니에게 건넸다. 어머니는 죽는 날까지 형을 그리워하다 세상을 떠났고 홀로 남은 동생 역시 형에 대한 그리움이 사뭇했다. 25년 간 폐질환을 앓아오던 아치볼드 씨는 지난해 6월 딸 데비 허시 씨(41)에게 “내 유해를 형이 누워있는 한국땅에 묻어 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생을 마감했다. 이후 딸은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노력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사연을 접한 한인 출신 연아 마틴 캐나다 상원의원이 국가보훈처에 이메일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다. 캐나다 현지 관련



형 조지프 허시 씨



동생 아치볼드 허시 씨

단체들도 형제의 합동안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모금에 나서 25일 합동안장식을 열게 됐다.

안장식은 데비 씨와 아들, 그리고 캐나다 참전용사와 유족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다. 박승훈 보훈처장은 유족에게 참전에 사의를 표하는 액자와 메달, 감사패를 전달했다.

6·25전쟁 당시 캐나다군은 모두 2만6,791명이 참전해 516명이 전사하고 20여 명이 실종됐으며 1,20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한편 2010년 3월에도 6·25당시 전사한 호주군 대위 케네스 존 휴머슨 씨의 부인인 낸시 휴머슨 씨가 남편의 묘역에 합장되는 등 지금까지 3명의 참전용사 부인이 남편과 합장됐다.